

미국 대학 의사소통 교육의 영속과 변천

: 레토릭, 오라토리, 스피치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학으로

이상철*

1. 서론
2. 레토릭, 엘로쿠션 그리고 오라토리
3. 엘로쿠션과 오라토리에서 스피치로
4. 스피치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6. 결론

■ 국문요약

이 글은 18~19세기 근대 미국 대학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레토릭, 오라토리와 엘로쿠션으로 소개되고, 20세기 초반에는 스피치로, 20세기 후반에는 스피치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21세기에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학문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교양교육으로서 혹은 전공 과정으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미국 독립 전후인 18세기 중반부터 대중교육이 획기적으로 확산하기 이전 1900년대까지 로마의 오라토리와 영국의 엘로쿠션 전통이 미국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scleemn@skku.edu

에 천착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이 초기 미국식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둘째, 19세기 후반, 루이지애나령 매입 이후 영토 확장, 새로운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인해 대중사회 출현에 맞추어 레토릭 교육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핀다. 셋째, 20세기 들어와 스피치 교육이 퍼블릭스피킹을 앞세우며 대학이 소수 엘리트 교육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스피치의 자유를 통한 시민의 권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논의한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사회적 배경을 검토하며 사회과학 방법론인 정량적, 경험적, 실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피치라는 개념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하며, 학문적 관심사와 분절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탐구한다. 다섯째, 21세기 들어와 학문의 명칭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개정하며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로 확산하면서 다른 학문과의 융합과 공생을 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주제어 ● 의사소통교육, 교양교육, 레토릭,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교육, 수사학교육, 수사학

“Rhetoric Never Dies, Only Transformed”

“커뮤니케이션은 공생(symbiotic) 학문이다”

1. 서론

미국 대학은 의사소통 교육을 기초교양과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건국 초기부터 레토릭을 모태로 한 의사소통 교육과 연구는 현대에 들어와 커뮤니

케이션 학문으로 변하여 미국 대학 교육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레토릭 교육이 현대에 들어와 커뮤니케이션 학문으로 변천하고 전개하는 과정에 대한 탐구는 레토릭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연구가 일천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대학은 건국 초기부터 의사소통 교육을 통해 스피치의 자유와 공공의 현안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을 양성하려고 노력하였다(Parry-Giles and Hogan, 2010). 근대 미국 대학은 레토릭 교육을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에 적합한 시민성을 증진하려 하였다. 미국 독립 전후인 18세기와 19세기의 의사소통 교육에서는 그리스 레토릭, 로마의 전통인 오라토리(oratory)란 개념, 근대 영국 레토릭의 영향을 받은 엘로쿠션(elocution)이란 용어로 학문의 정체성을 나타내었지만, 20세기 전반 레토릭, 오라토리와 엘로쿠션은 뒤로 하고 스피치(speech)라는 이름을 앞세웠으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스피치는 다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speech-communication)으로 변하고, 21세기에는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studies)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의 변화는 정체성과 관련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탐색은 레토릭과 스피치 그리고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목표와 지향점과 연구 대상은 물론 교과 과정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플라톤이 파이드로스에서 학문이 아니라고 지적한 이후, 레토릭이 학문으로서 위상과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그리스부터 수천 년 이어지고 있다. 레토릭은 인간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지적 탐구를 위한 가장 오래된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이 디아레틱에 상응하는 학문”으로 규정하지만, “레토릭과 디아레틱은 자체로서 다른 학문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다. …… 의학은 건강과 질병에 관한 학문이며, 기하학은 토지의 크기에 관한 학문이며, 수학은 숫자에 관한 학문인 것처럼 다른 학문은 대상이 분명하지만 …… 레토릭과 디아레틱은 주어진 상황에 따른 주제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주제를 [목표로] 하는 학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1356a] (Kennedy, 1991). 레토릭은 특정 주제를 학문의 목표로 하지 않고 있기에 지난 수천 년간 레토릭 학문의 정의와 정체성에 대

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은 시학으로부터 기법을 차용하고, 정치학과 함께 하며 공동체 의회에서 행복을, 법정에서 정의를, 의례에서 올바른을 추구하도록 하며, 청중의 심리를 이해하고, 연사는 윤리학을 알며,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서 레토릭은 본질적으로 시학, 정치학, 법학, 심리학, 윤리학, 철학과 학제간 협동 학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레토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 커뮤니케이션 학문이 학제간이며 다른 학문과 협동하는 학문이라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대학에서 정치·사회적 환경과 미디어 기술의 변화에 따라 레토릭,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용어가 변천하는 과정의 탐구는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은 다른 학문이 중점적으로 연구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문의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레토릭이나 커뮤니케이션은 학제간 학문인 동시에 다른 학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symbiotic)’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글은 18~19세기 근대 미국 대학에서 의사소통 교육이 레토릭, 오라토리와 엘로쿠션으로 소개되고, 20세기 초반에는 스피치로, 20세기 후반에는 스피치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21세기에는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학문의 명칭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교양교육으로서 혹은 전공 과정으로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미국 독립 전후인 18세기 중반부터 대중교육이 획기적으로 확산하기 이전 1900년대까지 로마의 오라토리와 영국의 엘로쿠션 전통이 미국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에 천착하고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교육이 초기 미국식 민주주의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둘째, 19세기 후반, 루이지애나령 매입 이후 영토 확장, 새로운 이민자의 급속한 증가, 자본주의와 산업화로 인해 대중사회 출현에 맞추어 레토릭 교육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핀다. 셋째, 20세기 들어와 스피치 교육이 퍼브릭스피킹을 앞세우며 대학이 소수 엘

리트 교육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검토하고 스피치의 자유를 통한 시민의 권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논의한다. 넷째,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사회적 배경을 검토하며 사회과학 방법론인 정량적, 경험적, 실험적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스피치라는 개념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하며, 학문적 관심사와 분절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탐구한다. 다섯째, 21세기 들어와 학문의 명칭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개정하며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분야로 확산하면서 다른 학문과의 융합과 공생을 하는 과정을 탐색한다.

2. 레토릭, 엘로쿠션 그리고 오라토릭

18세기 초반 영국 식민지 시절 미국에 설립한 동부사립대학들은 선택된 소수의 교육기관으로 대부분 레토릭 교육은 라틴어로 된 그리스-로마의 고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인쇄 기술의 미국 도입으로 영어교육의 비중을 확대하며, 미국 대학은 영어로 기반으로 기본 3과목인 문법, 논리학, 레토릭과 4과목인, 산수(추상의數), 기하학(공간의數), 음악(시간의數), 천문학(시간과 공간의數)을 기초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18세기 후반 미국은 독립 이후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영어교육을 강화하며, 새로운 민주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시민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를 확산하기 위해 레토릭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동부에서는 종교의 탄압을 피해온 청교도들 중심으로 대학교를 설립하거나 영국 왕정의 재정지원으로 설립한 대학교들이 미국 대학의 효시이다. 미국은 독립 이후, 식민지 시절 왕립대학이었던 뉴욕의 King's College는 Columbia University로 개명하고, 뉴저지의 Queen's College는 College of New Jersey로 바꾸었다가 1896년 현재의 Princeton University로 개정한다. 제4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아담스(John Quincy

Adams)는 “고대 그리스처럼 새로운 민주 공화정에서 대학 교육은 시민의 덕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시민 덕성을 함양하는 데에 레토릭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였다(Clark & Halloran, 1993). 18세기 미국 대학의 레토릭 교육은 영국 학파들이 주창한 엘로큐션을 강조하며 스피치의 전달과 실행에 중점을 둔 웅변 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 교수인 존 위더스푼(John Witherspoon)을 미국 뉴저지 대학 총장으로 초대하여 레토릭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위더스푼은 레토릭 교육을 통해 ‘덕망 있고 훌륭한 화자’(vir bonus dicendi peritus)를 양성하여 건강한 민주공동체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편 청교도인들은 전도와 설교를 위한 레토릭 교육을 중요시하였다(Hochmuth and Murphy, 1954). 초기 미국 대학들은 영국 대학의 교재인 토마스 쉐리던(Thomas Sheridan)의 <A Course of Lectures on Elocution>, 조지 캠벨(George Campbell)의 <Philosophy of Rhetoric>, 리차드 와틀리(Richard Whately)의 <Grammar of Rhetoric>, 휴 블레어(Hugh Blair)의 <Lectures on Rhetoric and Belles Lettres>를 레토릭 교육의 교재로 채택하고 유명연설을 암송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Clark & Halloran, 1993). 초기 미국 레토릭 교육은 이론과 실제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리스-로마의 레토릭 고전을 통한 이론에 대한 이해와 전달과 실행을 중심으로 하는 웅변을 실제로 표현하는 교육을 주로 하였다. 19세기 들어와서 미국 학자들의 저서가 발간되기 시작한다. 맥거피(McGuffey)는 비언어적인 표정, 제스처, 몸동작, 자세 등에 대한 그림을 포함한 <New Juvenile Speaker>, <The Manual of Elocution and Reading>, <The Star Speaker>를 출간하고(McGuffey, 1836; 1837), 사무엘 뉴먼(Samuel Newman)은 1827년 <A Practical System of rhetoric> 발간하는데, 이후 60회의 개정판으로 1860년대까지 미국 대학의 스피치 교재로 활용하였다(Newman, 1827/1847). 1824년 앤도버(Andover) 대학 오라토리 교수(Professor of Oratory) 포터(Avenger Porter)는 <Lectures on the Analysis of Vocal Inflection>을 발간하며, 1835년에는 스피치 평론서인 <Rhetorical Reader>가 출간되기도 한다(Porter, 1827). 그러나 당시 미국 대학교육은 동부 사립대학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만 레토릭 교육의 수혜자

들이었다(이상철, 2018).¹⁾

1803년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령을 매입하며 중서부로 영토가 대폭 확대하여, 19세기 중반에는 중서부에 새로운 유럽 이민자들이 폭증한다. 미국 경제는 크게 성장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산업 전반에 다양화되며 전문성이 요구된다. 참정권도 대폭 확산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대중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 정부는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단위의 미국 주립대학교를 설립한다. 1862년 모릴 법안(Morrill Act) 제정으로 미 연방정부는 각 주 정부에 수만 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공여하여 각 주립대학교의 운영과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을 일명 ‘공립대학토지공여법안’(Land Grant College Act)이라고 한다. 모릴 법안으로 미국 중서부 중심으로 대형 주립대학교를 창설하고 대중교육을 활성화 하는데 영어 글쓰기와 영어 말하기 교육이 기초 교양교육과정이 된다. 중서부는 물론 기존 동부와 남부에 있는 공립대학들도 혜택을 받으며 대형 주립대학교로 변신하고 대중교육에 앞장선다. 이들 주립대학교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론 중심 교육에서 실용 교육을 강화한다. 이들 주립 대학들은 농업과 산업을 위한 실용 교육을 강화하며, 일부 대학은 명칭에서부터 농업과 산업을 강조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한 학교도 등장한다. Agriculture and Mechanical(A&M)으로 혹은 Agriculture & Technical(A&T)로 한 대학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Texas A&M University와 North Carolina A&T State University이다. 현재 이들 대학에서 대학 명칭 개정에 관한 논의가 있으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개정하지 않고 있다. 당시 새롭게 창설한 중서부 대형 주립대학교는 농과대학에 레토릭 학과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는 19세기 후반 농과대학에 ‘Department of Rhetoric’을 설립하였으며 1980년대까지 존재하다 그 명칭을 1990년대 ‘Department of Technical Communication’으로 개명하였으며, 농과대학 소속으로 자연과학과 공학의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 대학의 ‘Department of Speech’는 20세기 초

1) 미국의 초기 레토릭 교육에 관하여 이상철(2018) 참조.

반 설립되는데, ‘Department of Speech’는 1960년대 ‘Department of Speech-Communication’으로 바꾸고, 2000년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tudies’ 개명하고 인문대학(Liberal Arts)에 편재되어 있다. 이 두 학과를 별칭으로 ‘쌍둥이(Twin)’ 학과라고 하며 ‘Department of Technical Communication’은 자연과학과 공학의 글쓰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둔 교육과 연구를 한다.

19세기 후반 미국의 대형 주립대학교는 영어영문학과를 대폭 확대하며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을 강화한다. 1870년대 들어와 일부 주립대학교는 ‘Department of Elocution’ 혹은 ‘College of Oratory’를 개설한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는 ‘School of Oratory’를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경우 설립 초기에 스피치 교육은 영어영문학과에 편재되어 있었지만, 1892년 ‘Department of Elocution and Oratory’로 독립한다. 1889년, 미시건주립대학교 스피치 동아리(University of Michigan Oratorical Association)는 미국내 대학간 스피치 대회를 처음 개최하고, 인근 대학들과 스피치 시합을 교류하기도 하며 디베이트 과정을 개설하고 디베이트 동아리를 결성한다. 1892년, 시카고대학교, 아이오와, 미네소타 주립대학교들이 합류하여 중서부 대학간 스피치 연맹을 창설하였다. 1890년 오블린(Oberlin) 대학, 위스콘신 주립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 코넬 대학교가 디베이트 리그인 ‘Northern Oratorical League’를 결성하고 1896년에는 미시건 주립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노스웨스턴대학교,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와 미네소타 주립대학교가 합류하여 중서부 중앙토론키그(Central Debating League)로 확대하였다(Baird, 1928). 이러한 중서부 주립대학교의 활동은 아이비리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1905년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이 동부 최초로 대학간 토론 대회를 개최하였다.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의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은 물론 학술 활동을 통해 스피치 교육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미국식 대중 민주주의를 위한 실용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확대하였다. 아담 힐(Hill, 1878)은 <The Principles of Rhetoric>을, 해밀(Hamill, 1882)은 <The Science of Elocution>을, 로버트 풀턴과 트루블러드(Fulton & Trueblood, 1893)는 <Practical Elements of Elocution>을 발간하고 3회의 개정판으로 인기 있는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당시 풀턴

은 오하이오 웨슬리언 대학의 School of Oratory 학장이었고 트루벌러드는 미시간 주립대학교 School of Elocution and Oratory 교수였다. 윌리엄 포스터(Foster, 1908)는 <Argumentation and Debating>를 발간하여 디베이트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였다.

엘로쿠션과 오라토리는 개념으로 레토릭 교육을 확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 주립대학교에서 스피치는 학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영어영문학과에 편재되어 있었다. 당시 미국 대학에서 레토릭 교육은 전통적인 레토릭 이론 교육과 연구에서 스피치 교육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데, 스피치는 “Oral English”라는 과목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큰 소리로 좋은 에세이, 이야기, 시를 읽거나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내용을 학습하였다. 영어영문학과가 지배적으로 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스피치 가르치는 사람들을 일종의 하급 지위로 인식하였다(Mountford, Roxanne, 2009). 스피치 교육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급여가 적었고 전형적인 승진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3. 엘로쿠션과 오라토리어서 스피치로

20세기 들어와 영어영문학과와 창의적 글쓰기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자와 연구자들은 스피치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주어진 주제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은 내용으로, 논증적인 구성이 미비하며, 명확한 어휘 활용이 미숙하다고 비판한다. 한편 스피치 교육자들은 글쓰기 교육자들이 스피치와 토론의 정치·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며 감성적인 설득과 전달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며 독립하기를 원한다. 일부 영문과 교수진이 전체적인 통합을 시도했지만, 스피치 교수와 문학 전공자들 사이는 멀어지게 된다. 1910년 동부 공적 스피치 컨퍼런스(The Eastern Public Speaking Conference)는 미국 대학 스피치 교수들의 첫 번째 조직적 모임이었다. 이 모임을 주관한 다트머스 대학과 코넬 대학에 재직한 제임스 위난스(James Winans)은 ‘퍼블릭

스피킹'이라는 개념으로 공적 스피치와 토론 교수들 중심으로 연기 스피치 중심의 전공자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이 학회 모임의 결과로 전공 관련 논문, 스피치 교수 학습 방안, 스피치 전공 관련 취업 소식 등을 담은 <Public Speaking Review>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스피치 교수들은 영어영문학자들이 중심인 전국영어교사학회(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NCTE)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 형편이었다, 1914년 NCTE와 미국 현대언어학회(Modern Language Association: MLA)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에 위스콘신 주립대학교의 제임스 오닐(James O'neil) 교수의 주관으로 중서부 주립대학교 교수들이 모여 전미대학공적스피치학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 NAATPS)을 결성하고 스피치 교육과 연구만 전문으로 하는 학회를 창립하였다. 1915년 160여 명의 스피치 교육자와 연구자들이 모여 전국 규모의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학술지 <Quarterly Journal of Public Speaking>을 창간하였으며, 3년 후인 1918년 학회지명을 <Quarterly Journal of Speech Education>으로 그리고 10년 후인 1928년 <Quarterly Journal of Speech>로 개명한다. 학회명은 'National Association of Academic Teachers of Public Speaking'(NAATPS)에서 1923년, 'National Association of Teachers of Speech'(NATS)로, 1946년,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SAA)로, 1970년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SCA)으로, 1997년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NCA)으로 개명하였다. 160명으로 시작한 회원 수는 10년 후인 1925년 1,100명, 1935년엔 3,031명, 개명한 1950년엔 6,000명, 2000년대 들어와 10,000명이 넘는 회원을 가진 대형 학회로 성장한다(Gehrke & Keith, 2015). 18~19세기 레토릭, 엘로쿠션과 오라토리라는 개념을 앞장세운 의사소통 교육의 정체성은 스피치로 대체된다. 이에 따라 중서부 대형 주립대학교는 앞다투어 학과명을 Dept of Speech로 개명하거나 창설한다. 예를 들어, 매릴랜드(Maryland) 주립대학교는 1914년 가장 먼저 'Dept. of Public Speaking'을 창설하고 1920년대 'Department of Speech'로 개명한다.

스피치 교수자들은 스피치라는 개념을 앞세우며 각 대학에서 퍼블릭 스

피킹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확산시키고 공적 스피치 교과목을 미국 대학의 중요한 교양기초과정으로 확립하고자 노력한다(Philipsen, 2015). 그들은 전통적인 개념인 엘로쿠션이나 오라토리를 뒤로 하고 퍼블릭 스피킹 다시 말해 공적 스피치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엘로쿠션이나 오라토리는 정치인, 행정가, 종교 지도자와 계몽주의 지도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연설에 중점을 두는 것에 방점을 둔다면, public이란 개념은 자연스럽게 고대로부터 내려온 민주 시민교육의 전통과 이어지며 소통 교육의 대상이 일반 시민으로 확산한다. Public Speaking에서 Public은 공공의 주제, 장소와 상황을 내포하고 있으며 동시에 평범한 민주 시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새로운 이민자와 대중 사회의 출현에 따라 공적 스피치의 수요와 상황은 더욱 다양화되어, 퍼블릭스피킹의 주요 교육 대상은 일반 시민이 된다. 미국식 대중 민주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대학의 교양 과정으로서 교과목 확립은 물론 학과 설립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 미국식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민은 잠재적 연설자이며 이들은 스피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Petraglia & Bahri, 2003; McDorman & Timmerman, 2008).

스피치로 개명한 이후 미국 수정 헌법에서 천명한 스피치의 자유(freedom of speech)에 대한 교육과 연구도 활발해진다. 1789년 미국은 헌법을 보완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을 제정한다.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스피치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시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스피치의 자유는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허용되어 혐오와 증오 표현으로 이어지는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스피치의 자유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권리로 1상징하고 있다. 20세기 전반, 미국의 스피치 교육과 연구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란 상황에 새로운 의사소통 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미국의 스피치 학자들은 스피치 교육을 미국식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미국식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이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1918년 라이언(Ryan, 1918)은 “독일의 레토릭 학자들은 학문이 진실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는데, 야만과 군사 폭력을 허용

하는 부끄러운 창녀로 전락하였다”라며 미국의 스피치 교육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으며, 1939년, 로버트 앨리슨(Allison, 1939)은 “토의와 토론은 선전과 선동의 반대말이다.”라며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유럽의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자부심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기도 하였지만, 케이블(Cable, 1935; 1942)은 스피치 교육은 “공공선을 위한 지혜를 갖추어 소통하는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지나친 애국주의를 경계하기도 하였다. 버드(Baird, 1928; 1937)는 “스피치와 의사소통 교육은 개인의 지식, 태도, 기술, 습성을 향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동체와 더 넓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을 잘 영위하는 것을 목표”라고 주장하였으며, “스피치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회 분위기나 선전과 선동에 대항할 힘을 기르는 것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자유는 조지 워싱턴과 선조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강조하였다. 펠레그리니(Pellegrini, 1934)는 “스피치와 토론 교육은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한 리더십 교육이며 시민으로서의무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스피치 교육은 민주공동체에서 사회적 요구에 맞는 개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신문과 잡지가 대중매체로 중요해지면서, 사실적 글쓰기를 교육하고 연구하는 이들은 저널리즘 교육과 연구에 집중하며 독립하기를 원하였고 1915년 ‘Department of Journalism’을 개설한다. 주파수 기술 발전으로 1920년대 라디오가 등장하지만, 라디오는 스피치 학과의 주요 연구 분야로 머물게 된다. 그리고 1930년대 성장한 영화는 연극학과 결합하며 영어영문 학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스피치와 연극학자들이 힘을 합해 ‘Department of Speech and Theatre’ 학과를 개설하는 대학교도 등장한다. 1920년대, 대부분 중서부 대학들에서 영어영문학과로부터 독립하여 ‘Department of Speech’를 창설하고 교양교육과정에서 <Introduction to Public Speaking> 교과목을 담당하며 미국식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를 다진다. 그러나 대부분 동부 아이비리그 사립대학들은 스피치 교육과 연구는 영어영문학과에서, 그리스-로마 레토릭의 교육과 연구는 고전학과에서, 정치 담론의 교육과 연구는 정치학과에서, 레토릭과 윤리에 관한 교육과 연구는 철학과에서 이루

어지면 된다는 인식 아래 독립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현재에도 대부분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아직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매스 커뮤니케이션학과도 없다. 20세기 전반 미국 대학에서 스피치 학자들은 레토릭, 엘로쿠션, 오라토리의 개념을 뒤로 하고 스피치를 앞세우며 미국식 의사소통 교육과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4. 스피치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4-1. 휴먼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확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50년대는 미국의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레토릭과 스피치 교육과 연구 부문에 많은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에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새로운 지적 혁명을 추구하며 정성적·서술적 연구 방법론 기반에서 정량적이며, 경험적이며, 실험적인 연구 방법론으로 매우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사회과학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지리학과 같은 많은 학문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부문에서 기존 전통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 사이의 뜨거운 논쟁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레토릭과 스피치 학문 분야의 내적인 변화도 있지만, 외적으로 사회과학 부문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스피치 학문이 인간의 ‘상징적 사회 상호작용’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의 도입을 요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한다. 스피치 학문에서 사회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정성적이며 서술적인 레토릭과 스피치 연구자들의 저항이 따르기도 하였다. 신진학자들은 전통적인 레토릭을 넘어, 스피치 분야가 인간의 상징적 사회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며, 인간이 소통하는 과정의 수단과 도구도 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피치에서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분야로 확장하면서, 다른

학문과의 경계는 더욱 모호해지고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의 변화를 추구하는 학자들이 등장한다. 기존 사회과학 역시 인간 행동의 거의 모든 측면에 관한 연구로 확장하면서 커뮤니케이션학을 필요로 한다(Cohen, 1994).

사회과학과 융합하려는 이러한 경향을 기존 레토릭과 스피치 연구자들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으로 개명하면서 사회과학 방법론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이 실험적 연구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레토릭과 스피치 학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학문의 관심 분야를 좁혀야 한다는 압력이기도 하였다. 젊은 연구자들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분야가 가지는 인간의 상징적 사회 상호작용에 관한 고유한 연구 부문을 바탕으로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경영학 등등 다른 사회과학 학문과 융합하고 공생할 수 있는 부문으로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다른 학문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의 학자들이 발견했어야 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부문을 융합하거나 공동으로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전에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들의 관할 밖으로 간주하였던 분야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기 시작한다.

스피치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점점 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됨에 따라 스피치라는 용어는 제한적으로 보이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게 보이게 된다. 기존 레토릭과 스피치 연구자들이 담론의 텍스트에만 치중하는 연구 성향이 있는 반면, 젊은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소통 과정의 상황과 맥락에 중점을 두며, 소통의 수단과 도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스피치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개념으로 변화한다. 1968년 미국 교육부와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가 후원한 <Conceptual Frontiers in Speech-Communication> 컨퍼런스에서 스피치 부문의 명칭을 Speech-Communication으로 변경하기로 권고한다. 해당 학회에서도 1960년대 후반에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의 변화와 학문적 전문 분야의 분절화에 따라 학회의 구조와 개편에 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 학회는 1970년 새 이름인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SCA)으로 개정한다. 동시에 대

부분 미국 대학들은 학과명을 Dept. of Speech-Communication으로 변경한다.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하이픈(-)을 넣음으로 스피치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연구를 하겠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레토릭이라는 전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치/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한 개편의 핵심 부분은, 1973년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현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1984년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현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1989년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등 새로운 학술지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용어가 더해지며 소통 과정의 수단과 도구인 채널과 인간의 상징적 상호 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자들이 증폭한다. 이들은 기존 전통의 레토릭가 스피치에 대한 교육과 연구보다 인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관심을 기울이며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게 된다(Kibler & Barker, 1969).

4-2. 레토릭 평론의 활성화

한편 1960년대 후반 레토릭 교육과 연구 부문에서 극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1950~60년대 적용을 게을리한 기존의 레토릭과 스피치는 연구자들은 새로운 정치·사회적 변화와 환경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변화를 추구하며 레토릭 평론 부문의 연구를 새롭게 활성화한다. 고전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톤센과 베어드(Thonnen & Baird, 1948)의 스피치 비평이 1948년에 발표되었지만, 설득의 3요소인 ‘에토스-로고스-파토스’와 ‘창안-구성-기법-기억-전달’과 같은 스피치의 5대 규범에 의한 레토릭 비평과 연구는 그 유용성에 비판받게 된다. 레토릭 평론에서 ‘3개의 증명과 5개의 규범’을 바탕으로 단기적 효과에만 더 이상 초점을 맞춘 ‘신아리스토텔리안’(Neo-Aristotelian) 평론 방법론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하며 힘을 잃는다. 레토릭 평론은 스피치의 단기적 설득 효과에만 더 이상 초점을 맞추지 않고 스피치의 내용의 진실, 심미적 기법, 사회적 윤리와 가치를 비평하는 레토릭

의 본질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에드윈 블랙(Black, 1965)의 <레토릭 평론>(Rhetorical Criticism)은 초기 고전적 경향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레토릭과 레토릭 평론이 커뮤니케이션 학문의 기초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 퀸틸리아누스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더 이상 스피치 텍스트 분석에서 연사의 전기,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배경에 대한 논쟁만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나. 레토릭 평론은 문학은 물론 철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자들의 이론과 방법론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문학 평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버크 비평’(Burkean Criticism)이다. 학위도 없이 영문학계의 외톨이라고 할 수 있는 케네스 버크(Kenneth Burke)는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상징 행위로서 언어>(Language as Symbolic Action), <동기의 수사학>(Rhetoric of Motive), <동기의 문법>(Grammar of Motive)을 발간하며 문학 평론과 레토릭 평론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공헌하게 된다. 버크의 영향을 받아 드라마 평론 방법이 등장한다. 레토릭 평론 방법론은 당대 문학 비평에서 널리 퍼져 있거나 심지어 유행하는 것도 받아들인다. 노스럽 프라이(Nothrop Frye), 웨인 부스(Wayne Booth), 리처드 위버(Richard Weaver) 등 문학 비평가들의 이론은 물론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rbermas),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 스테픈 툴민(Stephen Toulmin), 에른스트 카시르(Ernst Cassirer), 카임 펠레만(Chaim Perelman) 등 유럽 철학자들과 사회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평, 신화적 비평, 정신 분석적 비평, 담론 분석 방법을 받아들인다. 특정 지도자 스피치의 레토릭을 집중하던 이전 연구는 훨씬 더 광범위한 주제와 기반의 연구에 자리를 내어준다. 1960년대 이전 레토릭 평론의 대상은 압도적으로 백인 남성이었으나 이후 여성과 소수자들에게 더 큰 관심이 쏠렸고, 젠더 평론과 사회 운동의 비평이 증가하였다. 위첼런(Wicheln, 1925)이 주창한 문학 비평과 레토릭 비평의 차이와 구분은 더 이상 퇴색한다. 특히 1970년대 들어와 레토릭 비평이 스피치에 더 이상 국한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맞으며 장르 평론 방법이 소개된다. 레토릭 평론의 변화는 레토릭 이론의 변화를 반영했고, 레토릭 이론의 원천은 더 이상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이나 18세기 영국의 엘로쿠션에 의존하지 않고 철학과 문학으로 부터 수혈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대신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와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와 같은 사상가들의 관점을 활용하며 후기 구조주의 평론과 포스트모더니즘 평론이 등장한다. 스피치 평론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였지만, 사회 운동과 선거 캠페인 담론에 관한 레토릭 평론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이후, 레토릭 평론은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텔레비전, 건축, 그래픽 아트, 광고 및 기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대한 평론으로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으로

21세기 들어와 이전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이름으로 ‘스피치’를 통한 인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관한 관심은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상황, 맥락, 채널, 그리고 미디어로 확대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앞에 스피치라는 한정사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된다. 사회 상황이 급변하면서 학생들은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기를 원하였다. 1980~90년대부터 대인 커뮤니케이션,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조직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문화 연구, 미디어 분야 등의 교육과 연구를 원하며, 더 이상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게 된다.

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대응하며 커뮤니케이션의 교육과 연구는 더욱 활성화하고, 다른 학문과 교류하며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한다. 커뮤니케이션 학과나 학회에서 이제 더 이상 레토릭, 언어 그리고 스피치라는 용어는 주류가 아니고 휴먼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학회의 이름도 변경하기를 원한다. 레토릭과 스피치 학자들은 학회의 이름에 전통을 가진 ‘Speech’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중심 학자들은 speech를 없애고 커뮤니케이션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90년대까지 이루어진다. 2/3 이상 찬성표를 요

구하는 SCA 헌법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1996년 2/3 이상의 회원들이 찬성하여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NCA)으로 개명을 결정하였다. National과 American이 경쟁하였지만 국제 학회로 성장하기 위해 회원들은 National을 선택하였으며 당시 학회장인 제임스 체스브로(James W. Chesebro)는 국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교육과 연구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하며 NCA 첫 번째 국제 학회를 1997년 멕시코시티에서 주최하였다(Gehrke & Keith, 2015). 2015년 100주년을 맞이한 이 학회는 매년 10,000여 명의 넘는 학자들이 참석하는 대형 학회로 성장하였다. 현재 <Communication Education: 구 Speech Educ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구 Speech Monographs>, <Communication Teacher: 구 Speech Teacher>,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First Amendment Studies>, <Journal of Applied Communication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Review of Communication>, <Text and Performance Quarterly>, <Communication and Critical/Cultural Studies>, <Rhetoric and Public Affairs> 등 12개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Quarterly Journal of Speech>는 올해 108년의 전통을 가진 학술지이다.

21세기 들어와 대부분 미국 대학은 Dept. of Speech-Communication 학과를 Dept. of Communication Studies로 개명한다. 그리고 각 커뮤니케이션 학과들은 다양한 교과 과정을 개설하며 일부 학교는 레토릭과 스피치 관련을 바탕으로 휴먼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학과들은 새로운 미디어 현상의 커뮤니케이션을 주 관심사로 하고 레토릭과 스피치를 축소 운영하기도 한다.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기존의 레토릭 연구자와 스피치 교육자들과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 사이의 논쟁은 다양한 강도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의견 차이는 이념적이라기보다는 방법론적인 것처럼 보이며 근본적인 논쟁이라기보다 가족 간의 애증 다툼처럼 보이기도 한다(Philipsen, 2015). 대부분 학교들은 전통의 레토릭과 스피치 교육과 연구를 하는 이들과 휴먼 커뮤니케이션 교육과 연구자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구성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크게 대인 커뮤니케이션(Interpersonal

communication), 소그룹 커뮤니케이션(Small group communication), 조직 커뮤니케이션(Organizational communication), 문화간 커뮤니케이션(Intercultural communication), 비언어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 건강 커뮤니케이션(Health communication),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Business Communication), 그리고 과학과 기술 커뮤니케이션(Science and Technical Communi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들은 다양한 타 학문 연구자들과 협동(cooperation), 협업(co-work), 그리고 융합(hybrid)하여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레토릭이 원래 태생부터 근본적으로 학제간(interdisciplinary)학문이었으며 현대 커뮤니케이션 학문은 학제간 혹은 융합인 동시에 타 학문과 공생하는 공생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타 학문과 융합하여 공생하는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소개하자면, 첫째, 대인 커뮤니케이션이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영역으로 등장하기 전에, 1930년대 스피치 연사와 청중의 심리 연구를 이어받아 1950~60년대 들어와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대화’ 또는 ‘사적 말하기(private speaking)’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Murray, 1937; Oliver, 1959). 이들 스피치 학자들의 학문 기여도가 있었지만,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을 위해 사회과학자의 연구 특히 사회심리학자의 연구와 협업이 필요하였다. 70~80년대 들어와 사회심리학자들 또한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텍스트인 ‘대화’ 연구가 필요하여 학제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공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학자들이 수행하는 메시지에 관한 연구의 도움이 필요하였으며 협업의 결과로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을 발간한다(Knapp & Miller, 1985). 1980~90년대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휴먼 커뮤니케이션 부문은 물론 사회심리학에서 중요한 교육과 연구의 분야로 자리매김하며 전문 학술지 <Human Communication Research>를 발간하고 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은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발전에 영향을 미치며,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미국 사회에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교과 과정이 되고 학술지로는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Research>를 발간하고 있다. 대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출발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인류학과 사회심리학과 협업하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학문의 분야로 자리매김하였다(Gudykunst & Mody, 2002).

둘째,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은 1930~40년대 기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던 디베이트(debate) 연구에서 파생된 공공 토론(public discussion) 혹은 그룹 토의(group discussion)로부터 시작하였다(Allison, 1939; Baird, 1937). 1960년대 들어와 사회과학자들과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던 ‘소그룹 연구(small group research)’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과 만나 ‘소그룹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분야를 가져왔다. 베일스(Bales, 1950), 호만스(Homans, 1958), 헤어(Hare, 1976) 등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집단 의사결정과 같은 소그룹 연구에서 구성원들의 ‘대화’와 ‘텍스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소그룹 활동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1970~80년대 들어와 소그룹 커뮤니케이션 학자들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소그룹 의사결정의 모델, 소집단 내 대인 커뮤니케이션, 문제해결식 토론, 소집단의 역동성, 소집단 내 정서 지향적 및 목적 지향적 커뮤니케이션, 소집단 응집력, 갈등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과 주제로 연구 분야를 확대한다. Bormann & Bormann(1976)의 <Effective Small Group Communication>이 대표적인 초기 저서이다. 소그룹 연구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셋째,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1950~60년대 ‘비즈니스 스피킹’(Introduction to Business Speaking) 교육을 시작하며 기존의 단순한 스피치 교육 내용과 연구 방법으로 머물다, 1970~80년대 들어와 경영학과 연관된 조직 커뮤니케이션을 발견하고 경영학과 융합하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확장한다. 조직 커뮤니케이션은 경영학, 산업심리학, 인사관리, 문화인류학과 같은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고유 학문 영역은 아닌 것처럼 보이며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수 있지만, 이들 영역은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집중하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융합하기 시작한다. 재블린과 동료들은(Jablin, Putnam, Roberts, & Porter, 1987) <Handbook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을 출간하고 학술지로는 <Business Communication Quarterly>,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을 발간하며 조직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다. 21세기 들어와 경영학이 글로벌화되면서 문화간 커뮤니케이션과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융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미국 대학에서 경영학과는 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진을 채용하여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넷째, 대인, 소그룹, 조직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 구성원의 구조에 따른 분류라면 내용과 주제에 따른 분류로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과 과학과 기술 커뮤니케이션을 들 수 있다. 미국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로마의 오라토리와 영국의 엘로쿠션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기 미국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레토릭 교육에서 이루어졌다. 로마 오라토리의 전통을 이어받은 영국의 엘로쿠션 학파와 그 영향을 받은 미국의 레토릭 교육은 준언어(paralanguage)로 알려진 말의 리듬, 억양, 강세와 같은 운율적 특징뿐만 아니라, 말의 속도, 높낮이, 음량, 말하는 스타일 등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스피치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스피치의 자세, 제스처, 시선, 얼굴 표정, 용모 등 태도에 관한 비언어 교육과 연구를 수 세기 동안 지속하고 있었다. 1950~60년대 들어와 사회심리학자(Argyle, 1988)와 사회언어학자(Fodor, 1977)와 문화인류학자(Birdwhistell, 1952)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이들과 협업하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교육과 연구의 영역을 확산한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상호 작용중 일어나는 준언어, 동작학(kinesics), 공간학(proxemics), 시간학(chronemics), 접촉학(haptics), 신체 용모(physical appearance)를 주요 영역으로 분류하여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냅(Knapp, 1972)의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이 있으며 2013년 8쇄 개정판까지 출간하며 인기있는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Knapp & Hall, 2013).

마지막으로 과학과 기술 커뮤니케이션은 앞서 논의하였듯이 미국 대학에서 19세기 중반 농공업 발전의 수요에 따라 농과대학의 ‘Dept. of Rhetoric’으로 출발하여 지금은 자연과학과 공과대학으로 편재되어 협업을 주로 하

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 관련 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고, 과학적 발견을 알리는 활동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유형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과학도들은 대중과의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할 때,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비유, 유추, 은유, 스토리텔링 및 유머를 포함한 다양한 설득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과학 연구의 정치적 및 윤리적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의사결정에 올바른 정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공공 정책, 산업 및 시민 사회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그룹과 개인 간의 효과적인 정보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해 블로그, 인포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만화 및 게임과 같은 창의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사용하여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기도 한다(Bucchi, 2014). 기술 커뮤니케이션은 농업과 산업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과학, 공학을 넘어 디지털 정보에 관한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술 커뮤니케이션은 기술 또는 전문 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기술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다. 기술 커뮤니케이터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 과정이나 사용자의 매뉴얼 등에 관심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제품과 고객 서비스에 관한 실제적 커뮤니케이션에 더 중점을 둔다(Johnson-Sheehan, 2005). 최근 기술 커뮤니케이션은 기술 정보를 웹 페이지, 컴퓨터 기반 교육과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미디어에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된 텍스트에 넣는 방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술 커뮤니케이션은 제품의 기술 시스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쉽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을 연구한다.

6. 결론

최근 디지털 레토릭(digital rhetoric) 분야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Lanham, 1994; Eyman, 2015). 디지털 레토릭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영역에서 존재하는 소통이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및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다양한 형식의 기술과 담론에 관심을 가진다. 인간이 기술과 상호 작용하는 유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디지털 레토릭의 등장하였다. 디지털 레토릭은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 영역을 연구하면서 디지털 레토릭의 범위를 확장한다. 아이먼(Eyman, 2015)은 디지털 레토릭은 ‘디지털 텍스트와 담론을 레토릭의 이론으로 성찰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디지털 레토릭은 본질적으로 학제간 연구 분야이며 디지털 문해력, 비주얼 레토릭, 뉴미디어, 인간-컴퓨터 상호작용과 디지털 텍스트의 비판적 연구로 구분하였다. 디지털 레토릭 연구자들은 디지털 레토릭이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단순히 지식을 설득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으로 제한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보일, 브라운과 세라소(Boyle, Brown, & Ceraso, 2018)는 최근 <Rhetorical Society Quarterly>에서 디지털 관점에 더 중점을 두고 해석하며 디지털을 기존 레토릭의 관점에서 단순한 수단이나 기술로 보지 말고 일상생활을 포괄하는 ‘상황 조건’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레토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술이 점점 더 유비쿼터스화됨에 따라 전통적인 레토릭과 디지털 레토릭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방식이 다양화하지만, 상호작용에 인간이 개입하는 한, 디지털 환경과 비디지털 환경 사이에 구분이 점점 불분명해질 것이다. 보일, 브라운과 세라소는 ‘디지털 레토릭은 특정 맥락 내에서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그러한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모든 형태의 담론을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기술과 레토릭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한 ‘레토릭은 주어진 환경에서 모든 설득(소통)의 수단을 탐구하는 능력이다’라는 정의와 유사하다.

정리하자면, 18세기 미국 대중 사회의 출현, 19세기 제지술과 인쇄술의 발전, 20세기 초반 라디오, 20세기 후반 텔레비전 등 미디어의 변화에 따라 레토릭, 엘로쿠션, 오라토리, 스피치는 그 형태가 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미디어와 기술의 발전으로 변할 수 있다. 대학들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교과 과정을 새롭게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식 민주주의를 위한 퍼블릭스피킹 교과 과정이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립대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교양 과정으로 <Introduction to Public Speaking> 교과목의 강좌를 매 학기 25~30여 분반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수요가 증대하여 증설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원의 전통의 레토릭 전공자 또한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뉴미디어 담론의 레토릭 연구자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레토릭과 스피치를 기본 교과 과정으로 편성하고 휴먼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산하였으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으로 확장하고 있다. 인간 소통의 미디어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변하는 것이 있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본 틀은 변함이 없는 것이 있다. 인간은 말과 글로 서로 소통한다. Homo Loquens! 레토릭과 스피치의 교육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공공의 영역에서 행해지는 담론의 진실과 정의와 유용성을 탐구하는 레토릭과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를 위한 스피치의 교육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레토릭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은 정치·사회·기술의 변화와 상황에 따라 다른 학문과 공생하며 단지 변형할 따름이다.

〈참고문헌〉

- 이상철, 2018, 「미국 대학 교육에서 시민성을 위한 말하기 수사학교육의 천착과 스피치교육으로 변천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 독립 전후에서 1945년 이전을 중심으로」, 『수사학』 32호, 7-32.
- Allison, R. 1939, Changing concepts in the meaning and values of group discussion. *Quarterly Journal of Speech*, 25, 117-120.
- Argyle M ,1988, *Bodily Communication (2nd ed.)*. Madison, WI: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aird, A. C.,1928, *Public Discussion and Debate*. Boston: Ginn.
- Baird, A. C.,1937, *Public Discussion and Debate*, (rev. ed.). Boston: Ginn.
- Bales, R. F.,1950, *Interaction Process Analysis*. Cambridge, MA: Addison-Wesley.
- Birdwhistell, R. L.,1952, *Introduction to Kinesics: An Annotation System for Analysis of Body Motion and Gesture*. Washington, DC: Department of State, Foreign Service Institute.
- Black, E.,1965, *Rhetorical Criticism: A Study in Metho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Bormann, E. G. & Bormann, N. C., 1976, *Effective Small Group Communication*. Edina. Minnesota: Burgess Publishing Company.
- Boyle, C., Brown, J. J., & Ceraso, S., 2018, The Digital: Rhetoric Behind and Beyond the Screen. *Rhetoric Society Quarterly*. 48 (3): 251-259.
- Bucchi, M. & Trench, B. (Eds.), 2014, *Handbook of Public Commun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2n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 Cable, W. A., 1935, Speech, a basic training in the educational system. *Quarterly journal of Speech*, 21, 510-524.
- Clark, G. & Halloran, S. Mi.,(eds.), 1993, *Oratorical Culture in Nineteenth Century America: Transformations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Rhetoric*.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93.
- Cohen, H., 1994, *The History of Speech Communication: The Emergence of a Discipline, 1914-1945*. Annandale, VA: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 Eyman, Douglas, 2015, *Digital Rhetoric: Theory, Method, Practice*.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Fodor, J. D., 1977, *Semantics: Theories of Meaning in Generative Grammar*. Thomas Y. Crowell Co.,
- Foster, W. T., 1908, *Argumentation and Debating*. Boston: Houghton and Mifflin.
- Fulton, R.I. and Trueblood, T.C., 1893, *Practical Elements of Elocution*. (3rd ed.). Boston: Ginn.
- Gehrke, P. J. & Keith, W. M., 2015, Introduction: A Brief History of the 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in Gehrke, P. J. and Keith, W.M. (Eds). *A Century of Communication Studies: The Unfinished Conversation*, New York: Routledge.
- Gudykunst, W. B. & Mody, B. (Eds.), 2002, *Handbook of International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2002.
- Hamill, S. S., 1882, *The Science of Elocution*. New York. Phillip and Hunt.
- Hare, A. P., 1976, *Handbook of Small Group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Hill, A. S., 1878, *The Principle of Rhetoric*. New York: American Book.
- Hochmuth, M. & Murphy, R., 1954, Rhetorical and Elocutionary Training in Nineteenth-Century Colleges. in *A History of Speech Education in America: Background Studies*. Wallace, K. R. (Ed.). New York: Appleton-Century-Crofts, 153-77.
- Homans, George C., 1958, Social Behavior as Exchan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 63, N. 6, pp. 597-606.
- Jablin, F. M., Putnam, L. L., Roberts K., & Porter, L. (Eds.), 1987, *Handbook of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LA: SAGE Publications.
- Johnson-Sheehan, R., 2005, *Technical Communication Today*. New York: Longman.
- Keith, W. M., 2008v On the Origins of Speech as a Discipline: James A. Winans and Public Speaking as Practical Democracy. *Rhetoric Society Quarterly*, 38, pp. 1-19.
- Kennedy, G. A., 1991, *Aristotle On Rhetoric: A Theory of Civic Discours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Kibler, R. J. & Barker, L. L. (Eds.), 1969, *Conceptual frontiers in speech-communication: Report of the New Orleans conference on research and instructional development*. New York: Speech Association of America
- Knapp M. L., 1972,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Knapp M. L. & Miller, G. R., 1985,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Knapp M. L. & Hall J. A., 2007,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 Interaction (5th ed.)*. New York: Wadsworth.
- Lanham, R. A., 1994, *The Electronic Word: Democracy, Technology, and the Arts*.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Guffey, W. H., 1836, *McGuffey's New Juvenile Speaker: Containing More than Two Hundred Exercises, Original and Selected, for Reading and Speaking*. Unknown Binding. <http://digital.lib.miamioh.edu/cdm/landingpage/collection/mcguffey/>
- McGuffey, W. H., 1837, *McGuffey's The Manual of Elocution and Reading, The Star Speaker*. Unknown Binding. <http://digital.lib.miamioh.edu/cdm/landingpage/collection/mcguffey/>
- McDorman, T. F. & Timmerman, D.M. (Eds.), 2008, *Rhetoric & Democracy: Pedagogical and Political Practices*.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 Mountford, R., 2009, A Century After the Divorce: Challenges to a Rapprochement Between Speech Communication and English, in *The SAGE Handbook of Rhetorical Studies*, pp. 407-422. Lunsford, A. A., Wilson, K. H., & Eberly, R. A.(E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urray, E., 1937, *The Speech Personality*. New York: J. B. Lippincott
- Oliver, R. T., & Bauer, M. G. (1959). *Re-establishing the Speech Profession: The First Fifty Years*. University Park, PA: Speech Association of the Eastern States.
- Newman, S. P., 1827;1847, *A Practical System of Rhetoric*. New York: Dayton and

- Newman.
- Pellegrini, A., 1934, Public Speaking and social obligations. *Quarterly Journal of Speech*, 20, 345-351.
- Parry-Giles, S. J. & Hogan, J. M. (Eds.), 2010, *Handbook of Rhetoric and Public Address*. Malden, MA: Wiley-Blackwell.
- Petraglia, J. & Bahri, D.(Eds.) ,2003, *The Realms of Rhetoric: The Prospects of Rhetoric Educatio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Philipsen, G., 2015, Paying Lip Service to ‘Speech’ in Disciplinary Naming, 1914–1954,” in Gehrke, P. J. & Keith, W. M. (Eds). *A Century of Communication Studies: The Unfinished Conversation*, New York: Routledge.
- Porter, E., 1827, *Analysis of the Principles of Delivery*. Andover, MA: Newman, 1827.
- Ryan, J. P., 1918, Terminology: The department of speech. *Quarterly Journal of Speech Education*, 4,1-11.
- Smith, R. M., 1997, *Civic Ideals: Conflicting Visions of Citizenship in U.S. Society*. New Haven: Yale UP, 1997. Smith, Samuel Stanhope.
- Thonssen, L. & Baird, A. C., 1948, *Speech Criticism: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for Rhetorical Appraisal*. New York: Ronald Press
- Trueblood, T. C., 1915, College courses in public speaking. *Quarterly Journal of Public Speaking*, 1. 260-265.
- Wichelns, H. A., 1925, 1993, The literary criticism of oratory. In T. W. Benson (Ed.), *Landmark essays on rhetorical criticism* (pp. 1-32) . Davis, CA: Hermagoras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25).

The Permanence and Transformation of U.S. College Communication Education:

From Rhetoric, Oratory, and Elocution, to Speech, to Speech
Communication, and to Communication Studies

Lee, Sangchul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communications education in contemporary American universities. Early American communication education bega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ith the words of rhetoric, oratory, and elocution. These words were transformed into speech in the early 20th century, from speech to speech communication in the late 20th century, and from speech communication to the study of communication in the 21st century.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Roman oratory and the British elocution tradition developed in communication education in American universities from the mid-18th century, before and after American independence, to the 1900's, before popular education spread dramatically. It also discusses how it relates to early American-style democracy. Second, it looks at the process of changing rhetoric education according to the emergence of mass society following territorial expansion after the Louisiana Purchase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rapid increase in new immigrants, and capitalism and industrialization. Third, in the 20th century, speech education put 'public speaking' at the forefront, reviewing the process of universities shifting from a minority elite education to the general public, and discussing

how civil rights education through freedom of speech was achieved.

Fourth, it examines the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 after World War II and explores the change from the concept of speech to speech communication as researchers of quantitative, empirical, and experimental communication, which are social science methodologies, increase. And it investigates academic interests and how segmentation progresses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Fifth, in the 21st century, the name of the study was revised from speech communication to communication studies, and the process of spreading to the field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mall group communicatio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business communication is examined. It also explores convergent and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mmunication studies and other studies.

Keyword ● communication education, rhetoric, speech, public speaking
communication studies

|| 논문투고일 : 2022. 12. 22. || 심사완료일 : 2022. 12. 25. || 게재확정일 : 2022. 12. 25.